

여우를 닮은 섬, 호도

이 재 언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호도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에 딸린 섬이다. 보령 대천항에서 22.5km 떨어진 곳으로 녹도와는 4km, 삼시도에서는 6km 가량 떨어져 있다. 섬 지형이 여우처럼 생겼다 해서 호도라고 부른다.



대천항에서 하루에 두 차례 운항하는 ‘웨스트프론티어’를 타면 50분 만에 호도에 도착한다.



01 호도선착장

호도선착장은 섬의 북쪽에 위치해있다. 반 다이아몬드형의 계류장 안으로 들어가면 방파제가 제법 넓은 편으로 이층 계단으로 되어있다. 방파제에서 나오면 왼쪽에 녹색의 승선장이 있다. 호도여객선대기소다. 이쪽 방파제는 방파제라기보다 물양장에 가깝다. 이 주변에 각종 어구들이 널려있다. 이 섬의 어업 능력을 확연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어 물양장. 물양장에서 앞에 보이는 높은 곳에 있는 집이 해양경찰 파출소.

호도에 도착하면 여러 대의 손수레가 줄을 서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민박집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달고 호도 섬에 찾아온 손님을 기다린다.

해안가에 자리잡은 60여 민가는 현대식 주택으로 민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 섬은 크기가 작아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자동차는 발전소 소속 한 대 뿐. 필요한 물품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들어와 있고 차가 필요 없는 작은 섬이다. 그래서 자전거와 오토

바이 리어카가 주요 교통수단이며 20분이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 볼 수 있는 섬마을이다.

마을 입구 쪽에 ‘호도양식장 CCTV’라고 크게 쓰인 건물이 보인다. 어촌계 복지회관이다. 여기서 길은 해안도로로 왼쪽으로 이어진다. 이 앞에 계류장에는 작은 계류장이 하나 더 있다. 접계류장인 셈이다. 해안길은 돌을 깔아놓은 길이다. 중간 지점에 바닷가 쪽으로 팔각정자 쉼터가 있고 안쪽으로는 현대식 건물인 마을회관이 있다.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3층 규모의 건물이다. 박석길은 계류장을 끼고 반원형으로 이어진다. 이곳 마을은 거의 밀집된 형태다. 마을 뒤 편으로 논과 밭이 있다.



02 호도 분교장

해안길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가면 시멘트 포장길이 나온다. 오른쪽은 잡초가 많은 임야지대이고 왼쪽은 나즈막한 산을 끼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 있고 계속 가면 건물이 한 채 있고 그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그 옆으로 교문이 있다. 오른쪽 기둥에는 ‘호도길 81번’ 주소판과 함께 ‘청파초

등학교 호도분교장' 명패가 부착되어 있다. 교문을 들어서면 넓은 잔디밭의 운동장이 있고 교문 옆에는 몇 대의 자전거가 옆으로 놓여져 있다. 아마도 학생들이 타고 온 자전거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로타리클럽과의 자매결연비가 세워져 있다.

학교 가는 길목 옆으로 길이 있다. 이 길로 가면 보건진료소가 나오고 더 가면 해수욕장으로 이르는 길로 역시 돌을 박은 박석길이다. 보건진료소 주위는 임야이고 집들은 없다.

유명한 호도 해수욕장



03 호도 해수욕장

호도와 외연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고싶은 섬' 1위로 선정했던 곳이기도 하다. 호도가 이렇게 관광의 섬으로 변한 것은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섬의 동남쪽에 위치한 넓은 모래 해변인 호도해수욕장. 규사로 이뤄진 해수욕장이다. 동해 못지않게 맑고 푸른 바다와 '은모래 해수욕장' 등 피서지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갖춘 매력적인 곳. 좌우로 조각작품같은 기암괴석이 둘러싸여 있고 해수의 온

도는 22~26도다. 자갈밭이 있으며 활처럼 휘어진 1.5km의 은백색 해변이 펼쳐져 있어 포근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해수욕장의 길이와 폭은 300×100m이고 수심은 1~3m이다. 모래가 유리의 원료인 규사로 이루어져 있어 밤에도 밟으면 발자국이 하얗게 반짝거린다. 백사장 뒤로는 길게 소나무 숲이 늘어서 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 휴식처나 야영지로 안성맞춤이다. 여기서 앞을 보면 주변에 섬들이 참으로 많다. 호도는 이 해수욕장 때문에 대부분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관광지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호도도 이미 좋은 땅은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깨끗하고 현대식 주택을 만들어서 민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 소문이 나서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호도에 만약 해수욕장이 없었다면 바로 이웃 섬 녹도처럼 그냥 평범한 섬으로 남아 외롭게 살아가야 할 텐데 해수욕장 때문에 부가가치를 많이 누린 섬이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에게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주수입원은 해산물 어업과 채취이지만 단 1명의 관광객이라도 호도섬으로 유치하여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애를 쓰면서 경쟁적으로 민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예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워낙 해수욕장이 아름다워서 꼭 여름 휴가철이 아니어도 주중에도 많이 들어와서 즐기는 것은 먼 섬 외연도와 대천항의 중간에 위치한 덕분이다.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 때문이다. 호도 최고의 장점은 청정 해역으로 봄에는 해삼과 개불이 많이 나오고, 가을에는 전복과 낙지와 우럭, 광어, 꽃게, 간재미도 잘 잡힌다. 갯바



04 해초를 채취하는 모습

위 낚시도 그만이어서 인기가 있다. 봄이 되면 산에서 나오는 취나물, 쑥, 고사리, 달래가 지천이다.

호도 해수욕장 끝으로 걸어간다. 왼쪽으로 섬의 북쪽 지점에 해당되는 해안 끝자락에 낮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양쪽에 밧줄로 난간을 만들고 나무를 박아 만든 계단길이다. 여기서 왼쪽으로 길이 있는데 학교로 이어지는 길이다. 여기서 해수욕장 반대쪽 끝을 보니 해수욕장이 휘어진 활처럼 보인다. 이 주위로 나무가 거의 없는 임야지만 중간지점부터는 뒤로 나무들이 있어 방사림 역할을 하고 있다. 모래 해변 뒤 시멘트로 만든 길을 따라 계속 걷는다. 오른쪽 임야인 내대지에는 잡초들과 함께 모래밭이 되어버렸다. 이곳 해수욕장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래 위에는 천막을 씌울 수 있는 철제 기둥만 있고 그 외는 아무 것도 없는 모래 그 자체다. 그나마 일부에 돌로 된 의자와 함께 화장실 그리고 운동시설 등의 휴식공간이 있을 뿐. 시멘트로 된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도록 한 것도 있지만 경운기 같은 것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가면 오른쪽으로 비포장도로가 나 있는데 이곳은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가는 길이자 산으로 가는 길이다.

해수욕장 오른쪽으로 갈수록 끝자락에는 모래가 굽어지고 갯벌이 드러난다. 이어 오른쪽 끝 갯바위 지역이 있다. 여기서 방향은 서쪽으로 이어지는데 길을 툭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 길을 만들었다. 안내도에 의하면 '깡녀굴', '진달래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점이다. 여기서 해수욕장 끝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길게 생긴 섬이 삼시도이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섬이 추도라는 작은 섬. 이곳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해변은 자갈해변이다. 해수욕장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크기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다.

이 앞으로도 섬이 몇 개 보인다.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상대적으로 큰 섬이 녹도다. 외연도를 출발한 여객선이 이 녹도를 거쳐 호도에 닿는다. 호도에는 작은 해변이 두 개 더 있다. 그리고 안내도에 따르면 이 해변을 따라 계속 가면 특이한 바위들이 몇 개 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오른쪽으로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이 길로 해서 들어가면 산책로 입구이자 마을로 가는 길이다. 이어 합류지점이 나타난다. 직진은 마을로 가는 길이고 왼쪽 유턴을 하면 산책로다. 옆에 호도산책로 안내도가 있다.

호도의 산책로를 따라서

보령시는 호도를 비롯해 녹도, 삼시도, 장고도 등 4개 섬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호도는 선착장-민박마을-해수욕장-해수욕장 끝-산길-몽돌해수욕장 솔 숲길-쓰레기처리장-민박마을-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총 4km 1시간 30분 정도의 적당한 거리이다.

호도에는 호도해수욕장에서 소나무 숲길로 이루어

진 야산의 능선을 따라 호도 본섬 뒤편 해식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해안가의 절벽 인근까지 1.2km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로는 마을의 반대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두 개의 바다전망대가 있지만 아래에 있는 바다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작은 섬이 있는데 '명덕도'라는 섬이다. 객선을 타고 선착장으로 오다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섬이다. 이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아래에 해변이 있는데 이 해변이 몽돌해변이다.

마을 끝자락에 해당하는 지점에 교회와 함께 그 뒤로 발전소가 있다. 호도에는 농경지가 이곳과 해수욕장 뒤편의 농경지가 전부다. 발전소 가는 길목 입구에서 갈림길이 나타나 마을 골목길로 들어선다. 손수레 하나 들어서면 딱인 골목길로 들어서면 좌우로 집들로 가는 길인데 여기저기 민박집들이 대부분이다. 이 길로 해서 나가면 바로 마을회관 앞. 이 섬의 중심지다. 이 옆으로 매표소가 있다.

호도에 정착한 제주 해녀들

대천의 호도라는 조그만 섬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20명 정도 물질 원정을 왔다가 호도 총각들과 눈이 맞아서 주저앉아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재미 있는 역사가 있다. 호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섬인 녹도와 외연도, 장고도 등에 몇 명씩 있지만 호도처럼 많은 섬은 없다.

제주도 해녀들이 그렇게 많이 호도에 정착한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제주도와 가까운 남해안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멀어도 한참이나 멀고 먼 충남 대천의 호도까지 제주 해녀들이

원정을 와서 물질을 하다가 정착했다는 것은 연구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1960년대 당시, 배고프고 가난하여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주 여자들은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해야 했다. 그 당시 제주도 풍습은 여자들이 모든 힘든 일을 모두 맡아 했다.

여자들이 물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좋았기 때문이다. 미신 때문에 여자들은 배도 태워주지 않고, 그래서 고기잡이도 못하고 그 당시 다른 것으로 수입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산물이 풍성한 바다에 나가면 돈 벌이가 되는데 누가 말려도 자연스럽게 물질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바닷 속에는 전복, 소라, 해삼, 오분자기 등등 정말 많다.

제주도 해녀들이 너무 많아서 자원이 점점 줄어들었고, 일본의 통통배와 잠수기가 제주 바다에 등장하는 바람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육지 해안과 육지의 섬으로 동력선을 타고 원정을 떠났다.

제주 속담에 '아이를 낳고 삼일 후면 몸조리할 겨를도 없이 바다로 뛰어 든다'는 말이 있다.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지 않으면 농토는 부족하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 해녀들이 장시간 물질을 하다 걸린 잠수병 때문에 머리가 늘 아파 아스피린을 달고 산단다.

여자라고 천대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바다로 내몰리던 시절에 제주도에서 호도로 원정 온 30여명의 해녀 중에서 20명이 정착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인 것 같다. 호도는 먼 바다에 떠 있는 섬

이기에 해산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적당한 크기의 섬, 인심이 좋은 좋고 마음씨 고운 충청도 사람들의 특유 기질과 서로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제주도와 이동 거리가 멀지만 여기에서 기지를 만 들고 다시 주위에 있는 녹도와 외연도 장고도 등 원정을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이

것은 제주 해녀의 문화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호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주 해녀들이 섬에 정착한 것은 텃세가 심한 육지의 해안가 마을 보다 같은 섬이란 호감과 바다 자원이 많아서 그랬다.



05 호도 제주 해녀 1호 현여생(70, 왼쪽), 남편 최상신(76)